

보성녹차 '군수 품질보증'... 녹차 수도 명성 이어간다

15년째 시행...올 심의회 23개 업체 26개 제품 인증 받아 안전한 품질관리·소비자 신뢰 확보로 대외경쟁력 높여

보성군이 '보성 녹차' 품질을 군수가 보증하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15년째 이어오며 상품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올해는 26개 업체가 30개 제품을 가지고 출사표를 낸 가운데 23개 업체가 '군수 인증'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14일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 평가회를 받았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차의 외형과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 관능 평가를 했다.

이름 붙 가장 처음에 나온 어린 찻잎으로 만드는 '우전'과 '곡우', '세작' 등 차 종류에 따라 인증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 심의에는 보성군 차 제조기업 26곳이 제품 30개를 출품했으며, 심의를 거쳐 23개 업체

26개 제품이 군수품질인증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았다. 품질인증장표는 인증받은 뒤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군수 인증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업체 이름 등 정보를 미리 듣지 않고 오로지 녹차 상품만 보는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인증을 받으면 상품에 군수 인증 장표를 붙일 수 있다.

보성군은 군수품질인증제와 지난 2007년 지정된 녹차산업특구 사업을 활성화해 '녹차수도 보성' 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수품질인증을 받는 녹차 업체는 연간 30개 안팎 배출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1개 업체 가운데 27개가 인증을 받았고, 2020년 28개 중 25개, 2021년 30개



중 26개, 2022년 33개 중 31개, 올해 26개 중 23개 등 인증업체가 나왔다.

지난해 보성 녹차산업특구에서 활동하는 69개 업체는 292억 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 위원장은 김규용 부군수는 "군수품질인증제는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명품 보성녹차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후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위원들이 보성에서 생산한 차 제품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페플라스틱 수거활동중인 광양제철소 플라스틱병 크 봉사단.

광양제철소 '자원순환 플라스틱뱅크 봉사단' 플라스틱병 재활용한 '굿즈' 지역사회 기부

병 뚜껑 수거 비누받침 등 만들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버려진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한 굿즈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폐자원 순환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양제철소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순환 플라스틱뱅크재활용봉사단(플라스틱뱅크봉사단)'은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광양읍, 중마동, 성항동, 광영동, 금호동 등 광양시 곳곳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 뚜껑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광양 내 26곳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플라스틱 병 수거함을 방문하며 지역주민들이 손수 기부한

페플라스틱병 뚜껑을 수거했다.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병 뚜껑은 금호동 백운쇼핑센터에 위치한 플라스틱뱅크 체험관으로 보내져 분류, 파쇄, 사출 과정을 거친 뒤 치약짜개와 비누 받침 등 리사이클링 굿즈로 재탄생하게 됐다.

만들어진 재활용품들은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돼 지역민들의 일상에 윤택함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분리수거한 페플라스틱병 뚜껑이 다시 지역민들의 일상에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자원 순환의 모델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청렴 레벨업' 캠페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청렴 Level Up 캠페인'을 통해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은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에게띠를 착용하고 공단 각 사업장을 방문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시청, 청렴 길라잡이 리플릿 배포, 청렴 약속 나무 서명하기 등 활동으로 펼쳐졌다.

캠페인은 청렴 실천을 통해 과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번진 논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유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캠페인 실시를 통해 청렴 문화 조성의 지지를 다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청렴 레벨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구례 오미마을 5대가 함께하는 백수연 잔치

99세 어르신 가족·주민 참여 농악·가야금 공연 등 한마당

구례군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백수연(白壽宴) 잔치(사진)를 열었다.

구례군은 최근 토지면 오미 마을회관에서 백수연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백수연은 99세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구례군은 99세를 맞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마을회에 백수연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99세 어르신 가족과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잔치를 즐겼다. 특히 이날 갖 100일을 넘긴 5대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토지면 농악단이 흥을 돋우고 가야금 병창 공연도 진행했다.

류효숙 토지면장은 "주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



아 어르신 봉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전한다"며 "어르신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외식업소 시설 개선 진입 경사로·입식 식탁 교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순천시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순천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진입 경사로 설치(최대 80만원)와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최대 800만원), 화장실과 주방 바닥 등 노후 시설의 개선(최대 160만원)을 희망하는 외식 업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21개소로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견적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순천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외식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코딩 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 17명이 최근 치른 시험에 모두 통과하며 YBM COS(코딩) 4급 자격증을 받았다. <곡성군 제공>

곡성 초등학교 17명 코딩 자격증 취득

미래교육재단 교육 참여 전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재단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 17명이 모두 YBM COS(코딩) 4급 자격증을 따고 20일 밝혔다.

YBM에서 제공하는 민간 자격증인 COS 4급 자격증은 프로그래밍 기초 능력을 검증한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꿈키움마루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15일 치른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한 초등학생 17명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달 3~7일 재단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른 COS 3급 시험은 91.8%의 합격률을 보였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여수상의, 26일 '여수산단 추진전략' 토론회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모색

여수에서 여수산단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오는 26일 오후 여수상의 컨벤션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 관련 기관 연구원 등이 모여 '여수산단 추진전략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CCUS(탄소 포집·저장 활용) 필요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동향 및 시장 전망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석유화학 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

적 방향을 제시하고, 석유화학 관련 정보 공유,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등을 한다.

기조 발표와 좌장은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장이 맡는다. 권 단장은 한국 CCUS 현황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한국화학연구원 장태선 연구위원, GS칼텍스 수소사업개발TF 신혁 팀장이 'CCUS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과 실행전략', '여수국가산업단지 탈탄소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승우 센터장,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 여수탄소중립산업정책포럼 김신 위원 등이 나선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상시 신청

한 달 15만원 화장지 등 지원

순천시가 23곳에서 운영하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속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순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늘려갈 방침이다.

개방화장실을 내어주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한 달 10만~15만원 상당 화장지와 물비누 등 물품을 지원하고 화장실 인근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건물주는 화장실에 편의용품 상시 비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

순천시 하수도과는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순천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개방화장실 소유주들에 감사의 전한다"며



순천 시내에 마련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